



제19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좋은 광고를 선정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인 제19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이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정성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을 비롯, 이순동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임인규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회장, 김상훈 한국광고학회 회장,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등 광고계인사와 심사위원단, 수상자 및 관객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인식 고양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1993년 이 상을 제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 인사말을 전하는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 축사를 전하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평가받고 의견을 듣는 것은 유익하고 좋은 광고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정보의 전달성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 면에서 최고의 광고라는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와 권위를 갖춰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광고상”이라고 말하며 “문화부도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이 더욱 국민에게 사랑받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제19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



주최 : 한국광고주협회 KAA, 문화체육관광부
 일시 : 2011. 3. 31(목)
 장소 :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

